OECD/DAC

제12차 원조효과 작업반 회의(7.9-11) 결과

원조효과에 관한 제3차 고위급회의(High Level Forum) 준비(9.2-4, 가나 아크라)를 위한 제12차 원조효과 작업반 회의가 DAC 회원국, Non-DAC 공여국, 주요 수원국 및 국제개발기구 대표 등 약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7.9(수)-11(금) 사흘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아크라 고위급회의 의제, 진행 일정, 주요 배경문서(파리선언 설문조사, 파리선언 평가보고서, 원조효과 성과보고서 등) 및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아크라행동계획(Accra Action Agenda: AAA) 2차 초안이 검토되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2차 초안이 지난 제11차 원조효과 작업반 회의(4.2-3)에서 검토된 1차 초안에 비해 많은 진전되었음을 평가하고, MDGs 달성 등 빈곤감소와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며 일관성 있는 행동공약과 강화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아크라행동계획을 도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리 : 정책연구실]

Ⅰ. 핵심내용

■ 아크라 고위급회의 의제, 진행 일정, 주요 배경문서(파리선언 설문조사, 파리선언 평가보고서, 원조효과 성과보고서 등) 및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아크라행동계획(Accra Action Agenda: AAA) 2차 초안이 검토됨.

- 각료급 포럼인 아크라 회의에서는 2005년 채택된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이행을 중간점검하고, 2011년 이후의 원조효과 관련 중·장기 작업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 회의 참석자들은 아크라행동계획(AAA) 등이 지난 제11차 원조효과 작업반 회의(4.2-3)에서 검토된 1차 초안에 비해 많은 진전되었음을 평가하고, MDGs 달성 등 빈곤감소와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며 일관성 있는 행동공약과 강화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AAA를 도출하여 국내적 이행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원조 및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핵심 쟁점으로 지적된 ①역량개발(capacity building), ②수원국 시스템 활용(use of country system), ③책임, 예측가능성, 조건부여(accountability, predictability and conditionality) 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됨.

- 수원국들은 공여국 중심의 아크라행동계획 초안을 비판하고, South-South 협력 및 Non-DAC 공여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폭넓은 컨센서스에 기반한 AAA 도출 필요성을 강조

■ 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아크라 회의에 참석하는 각료급 인사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고, 포괄적 파트너쉽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표성 등을 고려, 패널리스트 및 연설자를 선정할 필요성을 지적함.

■ 우리측은 아크라행동계획에서 2005 파리선언 5개 원칙 및 지표에 대한 간결하고 일관성 있는 검토와 함께 성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제시하고, 개발협력 파트너의 다양한 역량 고려 및 파리선언 참여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시한을 정한 행동공약의 일률적 적용보다는 유연성(flexibility)있게 적용할 필요성 강조

- 아울러 원조 체제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RT 9)에 lead speaker로 참석 희망 및 차기 원조효과 작업반회의에 향후 정식 회원으로 활동 희망 의사를 전달함.

Ⅱ. 관찰 및 평가

■ 9.2-4 사흘간 아크라 고위급회의는 주요 공여과 수원국의 각료급 인사 및 국제개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하여 원조효과 제고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공고히하고, Non-DAC 공여국,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원조 주체가 원조분업 등 전통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슈를 포괄하는 포괄적 논의의 장이 된 것으로 예상됨.

■ 기여외교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DAC 회원국, 수원국 및 국제개발기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개발원조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서 우리의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가시어(visibility)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공여국들과의 개발협력을 강화하면서 2010년 OECD/DAC 가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아크라 회의에 참석하는 non-DAC 공여국들과 연대하여 non-DAC 공여국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평가의 확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금번 회의에서 많은 참가국들이 각료급 인사의 참석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자발적 기여금 제공을 약속하면서 자국 수석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부여를 요청한 바, 아크라 회의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고 작업반 정식 가입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우리측 수석대표 조속 결정 및 자발적 기여금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아크라 고위급회의가 개발협력에 관한 중장기적 방향 설정을 목표로 금년 12월 개최 예정인 도하 개발재원회의(financing for development)와 유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 아크라 회의 준비시 우리측 원조관련 기관이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전략적 기본입장을 정립하고, 주요 회의 결과문서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Ⅲ. 상세 논의 내용

1. 아크라 행동계획(AAA)

가.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

■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제고, 원조와 수원국 개발계획간 조화(harmonisation), 수원국 시스템 및 기관 활용(use of country system)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수원국의 역량개발을 위한 전체론적(holistic), 프로그램적 접근이 필요함.

- 수원국 개발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 시스템 및 지역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수원국 주도의 역량개발 노력에 상응하는 기술협력 등을 통한 공여국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우리측은 우리의 기술협력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노력을 소개하고, South-South 협력에서도 역량강화 측면이 강조되어야할 필요성을 지적함.

나. 수원국 시스템 활용 (use of country system)

■ 수원국 시스템 활용은 수원국의 시스템 및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포함한 매우 정치적인 이슈로 모든 국가가 동의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임에 공감함.

■ 시스템 신뢰 강화를 위한 수원국의 노력과 아울러 수원국 시스템 활용에 대한 공여국의 정치적 의지 제고 노력이 병행될 필요성이 강조됨.

다. 책임, 예측가능성, 조건부여 (accountability, predictability and conditionality)

■ 수원국과 공여국간 상호 책임(mutual accountability) 강화 측면의 접근 필요성 및 수원국 및 공여국 시민(public)에 대한 책임성 제고 필요성이 강조됨.

■ 원조 조건(conditionality)의 철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원국의 개발역량 강화,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원조조건의 긍정적 측면이 제기됨.

2. 회의구성 및 진행

가. 고위급 회의

■ 9.2-3 이틀간 동시에 3개의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어 총 9개 주제에 대해 자유토론 형식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

- 우리는 원조 체제(aid architecture)에 관한 RT 9에 lead speaker 참석희망 의사를 강력히 전달함.

■ 라운드 테이블 논의 결과는 아크라행동계획 및 향후 도하 개발재원회의에 반영토록 추진될 예정임.

※ 라운드테이블 주요결과는 9.3 수석대표 공식 만찬에서 보고될 예정임.

나. 장관급 회의

■ 파리신인 목표 달성 등을 위해 원조 및 개발관련 획기적 행동변화를 목표로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크라행동계획 도출을 위해 주요 당사국 각료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토론의 장 역할 추진

- 부대행사로 선별된 참석자간의 원조효과 및 개발협력에 관한 토론이 BBC World Service News에서 방송될 예정임.

■ 주요 공여국, 수원국 각료들이 참석할 전망임을 고려, 수석대표 발언기회 확대방안이 모색될 예정임.

다. 예산 및 행정

■ 아크라회의 준비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약 38만불에 대한 자발적 기여를 요청함.

- 일본, 미국, 캐나다, 덴마크, 콜롬비아, 핀란드, ADB가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함.

■ 기자단 참석 등록은 8.15기한 아크라 온라인 등록 가능(www.accrahlf.net)

2. 주요 발언요지

가. 미국

- 원조효과성 제고를 저해하는 제도적, 법률적 제약 등을 극복하고 실질적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정치적 의지의 중요성을 지적

- 민간부분 참여확대 관련 시민사회 기구 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 필요함.

나. EU 및 EU 회원국

-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한 야심찬 행동공약 표방 등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할 필요성 지적

- 원조분업(division of labour) 중요성 및 시민사회 역할 강조

- 여성평등, 기후변화 등 cross-cutting 이슈들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

다. 일본

- 아크라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포괄적 파트너쉽이 중요한 바, 아시아 지역의 참여를 보다 확대시켜줄 필요성이 있음.

- 원조분업 및 구체적인 행동공약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 지적

- 원조 조건부과(conditionality)의 긍정적 측면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예산지원(budget support)시 원조 의존(aid dependency)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라. IMF, WB 등

- 보다 분명하고 행동 지향적이며 모니터할 수 있는 약속(commitment)을 명시해야 함.

- 파리선언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카니즘이 AAA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함.

- 아크라회의 배경문서에 나타난 2005 파리선언 이행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자료에 기반하는 한편, 변화하고 있는 원조체제(aid architecture)에 주목해야 함.

마. 가나, 남아프리카, 세네갈, 베트남 등 수원국

- South-South 협력의 긍정적 평가 및 지원강화 필요성 지적

-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수원국 제도와 기구의 활용을 촉진할 필요성 강조

■ 파트너십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고, non-DAC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middle income countries)을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인 문안이 필요함.

■ 국제기준, 모범 사례(good practices), 모범 규범 등에 대한 언급은 상호간 동의가 우선되어야 함.

바. 한국

■ AAA 2차 초안이 언타이드, 공여조건 부여, 역량개발, 예측가능성, 원조분업, 인센티브 등과 관련한 수원국 입장을 수렴하는 등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아크라 회의가 파리선언에 대한 중간점검인 만큼, 2005 파리선언 5개 원칙 및 지표에 대한 간결하고 일관성 있는 검토와 성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조치 제시의 필요성 지적

- 이울러 개발협력 파트너의 다양한 역량과 상황을 고려, AAA 행동공약에 구체적인 시한을 징하여 일률직으로 직용시 오히려 AAA 및 파리선언 참여 확대를 저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우리측은 원조 체제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RT 9)에 lead speaker 참석희망 의사를 강력 제기함

■ 아울러 금번 작업반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한 우리측은 향후 작업반 정식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함.

[자료 : 주오이시디대표부]